

한국경제

임플란트, 부작용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 무엇?

기사입력 2012-04-18 08:54 최종수정 2012-09-18 09:41



[박영준 기자]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면에서 자연치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임플란트가 치과 환자들에게 변함없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임플란트는 치과 2곳 중 1곳이 시술을 하고 있으며 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물론 임플란트가 좋다고 해서 자연치보다 좋을 수는 없다. 때문에 자연치는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는 시술후 최소 1년에 한번은 치과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야 한다.

치과환자들은 치아가 상실되면 치아를 메우기 위해 틀니나 브릿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술은 단연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다른 시술에 비해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저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층과 달리 장·노년층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려되기도 한다. 장·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치조골이나 잇몸 등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깨닫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에는 통증과 출혈, 감각이상 등이 있다. 임플란트 후 통증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시술후 7일에서 10일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부작용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수술 직후의 출혈 역시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2~3시간 후에도 출혈이 지속된다면 역시 부작용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시술 직후 2~3일 간은 약간의 출혈은 있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 약간의 감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감염이 점차적으로 심해진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왔던 것은 기존의 방법보다 비싼 비용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개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당 1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와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비용은 보철물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브릿지에 비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밖에 임플란트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이나 턱뼈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나사형과 원통형으로 나뉘는데 나사형은 임플란트 고정체에 나사가 있어 고정력과 안정성이 좋다. 반면 원통형은 교합 하중의 분산에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나사형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임이 풀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경험이 많은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치주염 등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후에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1년 동안에는 3개월마다 한번 그리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전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중고 패밀리카 구입 "지금이 적기"**

▶ 갤럭시 노트 핑크 “여심 잡는다”

▶ 男 40% '임신 가능한 女' 원한다

▶ 오피러스 끝없는 추락 “K9 때문에...”

▶ 기아 'K9' 실내공간 들여다보니 “웅장한 디자인에 감탄”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76035>
